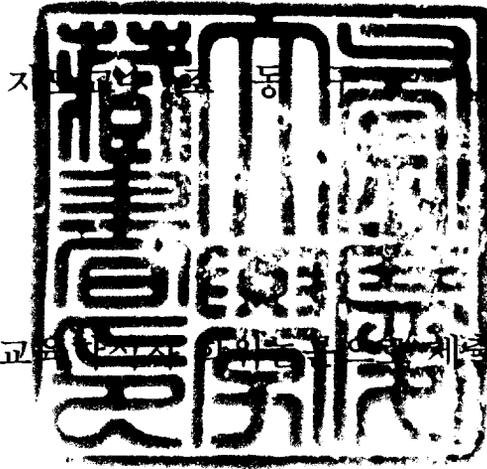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론

-중학교 1학년 2학기 <봉선화>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은 정

강은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 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목 차

※ 영문초록	vi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5
II. 수용이론과 중학교 시 교육	7
1. 수용이론의 필요성과 그 적용	7
2. 중학교 시 교육의 목표와 현실	10
가. 중학교 시 교육의 목표	10
나. 중학교 시 교육의 현실	17
(1) 중학교 시 교육의 실태	17
(가)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19
(나) 설문조사 결과	19
(2) 중학교 시 교육의 방향	32
III.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론	35
1. 기존의 수업모형 검토 - 반응 중심 모형 -	35
2.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	38
3.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실제	42
가. 수업지도안	42
나. 수업의 실제	53
4.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효과	58

IV. 결론	73
【참고문헌】	75
【부록1】 학교에서의 시 수업 실태조사	79
【부록2】 형성평가지	82
【부록3】 학생작품의 실례	83

표 · 그래프 목차

【 표 】

<표1> 교사 중심의 시 수업후의 설문조사	21
<표2> 경규진의 반응 중심 모형	36
<표3> 윤미영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	39
<표4> 학습자 중심의 <봉선화> 수업 지도안	51
<표5>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후의 설문조사	59
<표6>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소단원 수업 분위기 비교	64
<표7>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시 수업 진행 방식 비교	65
<표8>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이용된 자료 비교	66
<표9>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비교	67
<표10> 교사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 비 교	68
<표11>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시의 생활에의 적용 비교	69

【 그래프 】

<그래프1> 평소 학습자의 문학 장르에 대한 호감도	22
<그래프2> 평소 학습자의 시에 대한 호감도	22

<그래프3> 평소 학습자가 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23
<그래프4>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의 분위기	24
<그래프5> 교사 중심의 시 수업 후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25
<그래프6>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의 진행방식	26
<그래프7> 교사 중심의 시 수업시간에 이용된 자료	27
<그래프8> 교사 중심의 시 수업 후의 학습자가 원하는 시 수업방식	28
<그래프9> 소단원의 교사 중심 시 수업 분위기	30
<그래프10> 교사 중심의 수업 후 학습자의 시의 생활에의 적용...	31
<그래프11>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의 분위기	60
<그래프12>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진행 방식	61
<그래프13>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시간에 이용된 자료	61
<그래프14>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후의 학습자가 원하는 시 수업 방식	62
<그래프15> 소단원의 학습자 중심 시 수업 분위기	62
<그래프16>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후 시의 생활에의 적용	63
<그래프17>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소단원 수업 분위기 비 교	64
<그래프18>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시 수업 진행 방식 비 교	65
<그래프19>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이용된 자료 비교	66
<그래프20>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 비교	67
<그래프21> 교사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	

비교68

<그래프22>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시의 생활에의
적용 비교69

A Study On The Learning Of Learner-Centered
Poetry Education

Eun Jung K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poem education is to bring up sensibility of poem, to do research life on the whole to student by contacting variety poem world. Accordingly, poem education must make progress the direction of appreciation in variety views with wide-ranging impressions and take interest in a work. But poem classwork education in field is limping, teacher demand their student only Literally knowledge that analysis and memorize is putting first in importance.

So students don't chance that appreciation a poem by the chief object and voluntary because such along poem education, students would feel a burden and distance, rather than enjoy and appreciate a poem. This study recognize problem and grope the Appreciativeness method of guidance to conquest these problems.

Poem appreciativeness guidance that based on the reception Theory is signification for the points that give as security education suitable essences of literature and is taken part in voluntary and active. Perception Theory is start the premise, the work is completed by reading, Realness text is not valuable and Real understanding of literature text is possible by only real reading Interpret for work is not given, but search.

A work has meaning when Reader read and internalize. Accordingly, This study grope learner-oriented verse Appreciation Method of classwork that is a solution for problem of poem education infield and admit reception

theory. As concrete realization method, this study present poem classwork model of Reception theory.

The followings are the way how to apply poetry teaching to the each stage.

At first, the planning stage should be designed to set up a goal of the class, and to decide learning contents and activities for each individual class, and evaluation method and its criteria.

Secondly, the diagnostic stage should include the process of extracting essential learning key-points from the previous lesson to see how much students learned, and also include lesson plan for teaching the unacquired things which were diagnosed through the starting point behavior test.

Thirdly, teaching stage is structurized into three steps of whole approach, partial approach and integral re-establishment according to the confirmed result from the test and each step shows specific activities that should be performed in it.

Within the step of whole approach, students will devide the poem into several meaningful passages, under stand and summarize them according to the order. Integral approach will include finding out themes of poems, solving activities and completing learning through consolidation.

In the fourth stage for evaluation, students' descriptive writing of their impression about the poem will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stage the evaluation of poetry teaching should be done in consideration of general evaluation items.

Fifthly, internalization stage is for the further study of the class. However, it seems impossible for the learner s to achieve this stage in the identical class. Students will appreciate various poems through writing poetically a story of their personal experiences and a parody, recording their poem-reading and selecting poems which have similar themes or backgrounds with the learned one.

Students who learned poems through the process of this model for literature subject class can imagine the situation of the narrator in a poem and interpret the poem with the view point of the narrator. They can also express their opinions. It is wonderful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ho just memorize interpretation of a poem as exactly as that is in a

reference or as the way teacher s teach became decreased.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the students who try to interpret the poem for themselves proves that this teaching method is very effective.

Conclusionally, students improved their ability to find out themes of a poem or interpret it. This fact verifies that the traditional idea that teacher-centered class is more efficient is a fallacy, and it approves that student-centered class is more helpful to increase students' poetry appreciation.

Even though the teaching-learning model in this study is a very good one and will be generalized, this should be used in combination and should be revised more.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교육의 방향과 시 학습 활동은 다양한 반응을 권하고 수용하고 있으며, 시를 직접 지어 보게 하는 등 문학 교육에 창작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¹⁾

또한 문학 교육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통해서 미적 인식력과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때, 시 교육은 학습자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여 작품 세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원적 해석 방법을 벗어나 다원적 해석 방향으로 나아가며, 작품을 폭 넓게 감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음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시 해석의 방법을 학생 스스로가 발견해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²⁾

이러한 문학 교육의 목적에 비취볼 때,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교육이 그 목적에 충실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입시나 시험 위주의 학교 교육이 갖는 한계 때문에, 혹은 차시의 부족이나 여건의 열악성 때문

1) 이혜정,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시 단원 지도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6.

2) 김선영, 「시 교육 방법론 연구 - 수용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

에 학교 현장에서의 문학 교육은, 특히 시 교육은 대부분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존의 문학교육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신비평의 분석주의가 도입되어 교사중심의 강의식, 주입식 수업을 지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글자나 문법, 작문이나 말하기 기능을 지도하는 것처럼 문학교육에서도 분석적인 독해학습을 강조하였고, 개별 문학작품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감상과 비평이 아닌 이미 정해진 문학적인 해설과 해석을 단순 수용하도록 하는 결과중심의 시 교육으로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 교육은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 능력 향상보다는 문학과 관련된 지식 전달이 주된 학습 활동이었던 것이다.

주입식 위주의 시 수업은, 7차 문학교육의 핵심인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과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시의 관계를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 중학교 1학년 중 90%이상의 학생들이 문학 장르 중 시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³⁾ 이러한 문제점의 발견과 반성에 힘입어 시 제재 수업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시 교육에 관한 연구는 현장교육의 문제점 지적 및 실태 파악의 비중이 컸던 반면 시 교육의 목표 인식과 구체적인 시 지도 방법의 설계도 미진하였다. 특히 7학년 2학기 4. <시의 세계>단원은 중등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시만을 다루는 대단원임에 주목 할만 하다. 이제까지 시 단원은 문학이라는 하나의 큰 범주안의 소단원의 제재로 활용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7학년 2학기 4. <시의 세계>단원은 본격적인 시 학습이 시작되는 단위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대단원을 중심으로 시를 제대로 가르칠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3) 본고 II장의 ‘중학교 시 교육의 실태’ 참조.

2.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시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대략 4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시 교육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⁴⁾

둘째, 구체적 수업 전략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⁵⁾

셋째, 시 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⁶⁾

넷째, 문학이론과 학습이론의 문학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⁷⁾

-
- 4) 윤준옥, 「중·고등학교 현대시 교육의 문제점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정창현, 「현대시 교육의 실태와 수업 모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종식,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대홍,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윤 미, 「시 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5) 조영수, 「현대시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주향, 「시 교육 방법 연구: 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의식, 「현대시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중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문석, 「한국 현대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6) 최순열, 「문학 교육론-그 이론의 정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김 숙, 「시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시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정선희, 「현대시 수업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유병학, 「시문학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7) 강현재, 「시 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록호, 「상호 텍스트성에 의한 시 교육 방법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 교육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신비평적 문학관에 바탕을 둔 문학교육이 문학수업을 분석적, 지식위주, 주입식 교육으로 이끌어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한하는 비문학 교육적 현실로 이끌었음을 비판한 것이 대부분이다.

구체적 수업 전략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는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구체적 수업 전략과 개선방향에 관심을 나타낸다. 이 연구 경향은 문학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탐색한 것으로 대부분이 학교 현장의 연구 논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 바탕을 전제로 했을 때만 구체적 실천 방법론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이며,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본질을 망각한 연구가 되기 쉽다.

시 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는 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이 검토와 이론의 정립 및 총체적 지향점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경향이다, 이 연구의 경향은 시교육의 개념, 시교육의 본령 및 목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문학이론이나 학습이론의 문학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는 문학이론을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적용에 관한 문제와 그 효용성을 검증한 논문들이다. 이 연구 경향은 문학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을 탐색하고, 교수 - 학습에 이 이론을 직접 적용하려는 것들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론은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권

-
- 윤미영,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응균, 「수용미학적 접근을 통한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문국희, 「시 교육의 기호학적 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문영희, 「시 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보운,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론의 메타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혁준과 문영희, 윤미영 등의 연구가 있다.

권혁준은 신비평 이론이 우리나라 시 교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독자반응이론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문영희는 수용자 중심의 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린 질문의 효과적 구사, 정제된 해석 설명의 극소화, 선행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이해능력 훈련, 텍스트의 총체적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여, 구체적인 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윤미영은 야우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시 감상 지도 모형을 제시했는데, 지도의 단계는 크게 '기대 지평의 형성-기대 지평의 전환-기대 지평의 재조정-기대 지평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와 심화'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수용이론을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태를 조사해 봄으로써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이 중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장에서는 수용이론과 중학교 시 교육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수용이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중학교 시 교육의 목표와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중학교 시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 중심의 시 교육을 시현해 보고, 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

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의 한계를 지적한 다음, 중학교 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교사 중심의 시 교육을 대체할 방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제시하였다. Ⅱ장에서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을 한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시 수업 방법을 토대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직접 수업을 시현해 보았다. 또한 학습자 중심 시 수업의 결과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 중심의 시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한 후의 설문조사를 비교하여 오늘날 진정한 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해 보았다.

Ⅱ장에서 실시한 교사 중심의 시 수업과 그 설문조사와 Ⅲ장에서 실시한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과 그 설문조사는 표본 집단이 다름을 미리 밝힌다. Ⅱ장의 수업 시현은 2004년 12월 부산 소재 A중학교 1학년 한 반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학제상 표본 집단이 되었던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급하였기 때문에 Ⅲ장의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을 시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Ⅲ장의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은 2005년 5월 부산 소재 A중학교 1학년 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정한 단원은 1학년 2학기 단원이지만, 논문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학년 1학기에 미리 시현하였음을 밝힌다.

이상의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II. 수용이론과 중학교 시 교육

1. 수용이론의 필요성과 그 적용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이란 한마디로 기존의 가치관 중심, 텍스트 중심의 문학교육 체제에서 이루어지던 교사 중심, 결과 중심,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의 학습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등장시키려는 현대 교육적 동향의 문학 교육적 실천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8)

문학 이론의 변화 흐름에서 보면, 현대 문학 이론이 역사적으로 변모해 온 양상은 문학적 현상 요소 중 어느 것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검토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낭만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19세기를 지배했던 작가에 대한 관심이며, 둘째는 20세기 들어 신비평, 구조주의로 대표되는 텍스트 구조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셋째는 근래에 들어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독자에 대한 관심이며, 네 번째는 이와는 별도로 현신 반영으로 문학을 조망하는 시각이 있다. 이상의 네 가지 관심 영역은 많은 비평 분야를 열었지만 개괄하여 생산이론, 구조이론, 수용이론, 반영이론이라 이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수용 이론은 우선 독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문학 텍스트의 수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은 현대 사회의 사회 구조 및 개인의식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현대 산업 기술 발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각종 매스미디어와 정보 수용 체제의 발달은 종래의 문학관 및

8) 문영희, 「시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1, p.57.

문예학이 지닌 고정 관념에 상당한 변화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문학의 형성과 작용에는 독자도 작자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식이 대두되었음을 뜻한다. 수용이론은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가 1967년 서독의 신설 대학인 콘스탈쯔 대학에 교수로 취임하면서 행한 첫 강의 논문 「문예학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에서 발단되었다. 이것은 문학 텍스트의 이해와 평가를 독자,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수용자 중심적인 문학 연구 이론이다.

야우스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밝혔듯이, 수용 이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주로 형식적-심미적 문학 연구의 방법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작가와 텍스트(작품) 중심적인 문학 연구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비평이 있는데, 신비평은 문학 텍스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여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 연구의 이상적 목표를 절대적 객관성에다 두었다. 그 결과 신비평은 비평의 객관화와 과학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작가-텍스트-독자’라는 문학 현상의 삼각형 가운데 한 정점인 독자를 배제함으로써 문학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밝힐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새로운 문학 이론이 수용이론이다. 그러나 수용 이론은 단순히 독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은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문학 텍스트의 이해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상상적인 측면에서의 독자 역할의 필요성을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본질적인 의미에서 문학 텍스트의 참다운 이해는 독자의 참다운 독서 행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이론은 작가가 창작해 놓은 인쇄물인 창작 작품을 ‘텍스트(Text)’라고 부르고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재생산해낸 문학 텍스트를 ‘작품(Work)’이라고 한다. 작가에 의해서 창조되어 이 세상에 주어진 텍스트는 작가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

이 독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직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 작가의 한편의 문학 텍스트는 오직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만 상이한 여러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종래의 실제적인 문학 텍스트 관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텍스트의 수많은 해석이나 또는 과거의 창작 텍스트들의 끊임없이 새로이 다르게 해석되는 실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야우스는 ‘수용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여 진다’는 해석학의 원칙에 근거하여, 텍스트 수용에 있어서 ‘기대지평’의 재구성을 전제로 한다. 기대 지평은 수용자가 지닌 창작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가리킨다. 수용자 각각은 선행 경험, 전통, 습관, 상식, 교육 등에 의해 나름대로의 기대 지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대 지평은 시대별로 장소별로 다를 수 있으며,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 선입견, 이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대 지평은 텍스트 이해를 위한 수용자의 실제적인 전제조건들이며, 한 편의 작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수용자의 기대 지평’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수용자의 기대 지평은 낮은 지평에 부딪치고 변화되어 지평의 전환을 초래하게 된다. 새로운 텍스트의 지평이 일단 이루어져 있는 경험을 부정하거나 의식화함으로써 지평의 전환을 초래하게 된다. 지평의 전환은 각 개인의 지평이 다르니 만큼 개인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다. 즉, 독자가 텍스트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된 삶의 총체적 모습과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간의 갈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내면의 지평 전환’을 겪을 수 있다. 지평의 재조정은 수용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융합되어 원래의 기대 지평이 재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정의적으로 한층 고양된 지평을 형성하게 되는 단계로서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평 확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불투명하고 판명되지 않은 잠재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궁극의 심리적 과정은 오랜 지속의 시간적 변인을 요구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작용 주체인 독자 자신이 이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텍스트와 상관하여 영향을 주는 주변 체험의 기대 지평이 매우 복잡적이고 미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수용 이론은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던 독자의 역할을 부각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텍스트가 역사적으로 달리 해석되어 왔던 사실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켜 준다. 결국 텍스트의 수용이란 텍스트의 의미 이해가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형태화 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 곧 심미적 구체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의 해석은 텍스트의 고정된 의미화일 수 없으며, 상상적인 것의 속성대로 텍스트와 수용 텍스트,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끝없는 소통으로 개방된다.

2. 중학교 시 교육의 목표와 현실

가. 중학교 시 교육의 목표

시는 문학의 핵심적 장르이며 문학으로서의 자율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장르이다.⁹⁾ 문학 교육의 한 갈래인 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삶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 특히 지적, 정서적인 욕구가 가장 발달하고, 인생관이 정립되어 가는 중학교 시기에 있는 학습자에게 시의 교육적인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교양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¹⁰⁾이므로 지나치게 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보다는 실생활과 연계되

9)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p.240.

는 '삶을 위한 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인환은 문학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시 교육 목표를 제시한 바 있었다.¹¹⁾

시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목표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 교육의 목적을 삶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아직 입시의 경쟁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 교육일 경우에는 '삶을 위한 시 교육'이 보다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시를 통해 행하는 모든 정신 작용은 예술적인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그것은 실생활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종합적 정신능력에 의한 작용이다. ¹²⁾

인간이 사회 속에서 원만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상상력, 창의력에 의한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인간의 사회화 요소를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시 교육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이 시 교육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 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삶과 조응되는 과정임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10) 지현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시 수업 모형」, 『국어교육연구』, 27호, 경북대학교, 1995.

11) 구인환은 시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세련된 언어 감각의 형성이 시 교육의 한 목표가 된다. 시의 경우 언어의 운용 방식이 고도로 세련되어 있어 시를 읽고 감상하는 동안 의미론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언어의 감각을 구체적으로 기를 수 있다.
- ② 시의 음악성과 구조를 통한 위안감을 맛볼 수 있다.
- ③ 시적인 감동을 통해 혹은 시인의 감동을 독자의 감동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내적인 충일감을 맛볼 수 있다.
- ④ 시를 읽음으로써 상상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 ⑤ 시를 읽음으로써 체험을 확대할 수 있다.
- ⑥ 사물에 대한 애정을 회복할 수 있다.
- ⑦ 사물을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를 기할 수 있다.

12)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pp.6~8.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중학교 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삶의 질적 향상에 두고, 그에 따른 구체화된 중학교 시 교육의 목적으로는 정서의 함양,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 계발, 세련된 언어 구사 능력 등이 있다.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학 과목에서는 수용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의 기능을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문학 수용의 차원에서 개인적 삶을 고양시키는 기능과 공동체를 통합하는 기능을 덧붙이고 있다. 시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시에 비추어 보면서 시 세계를 동경하거나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인식하게 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시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의의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시 교육의 목적, 즉 정서의 함양, 상상력과 창의력의 계발, 세련된 언어 구사 능력 등은 가치 있는 삶을 판단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역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불안한 정서, 왜곡된 정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들에 대한 대안으로 시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육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시 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현실을 인식하고 비판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은 시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다. 학습자는 시어를 통해 드러나는 현실을 상상력을 통해 인식하고 비판하며 이 둘의 상호 교섭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과정은 학습자에게 창조적 경험뿐만 아니라 자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시의 교육성 또한 개인의 자유로

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가운데 자아의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 교육은 ‘아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대해 아는 것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력이며 이러한 실천이 뒤따를 때 시의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이다. 시가 교육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간의 육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 지향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동체 지향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신지식인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교육적으로 기대하는 바이며 나아가 현실의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학교 시 교육의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국어과 교사상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양왕용은 그의 저서에서, 국어과 교사가 시 지도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¹³⁾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단원 가운데는 문학 단원보다 비문학 단원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생활국어 교과서에는 국어지식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도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모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국어과 교사이다. 그러나 주지할 것은 문학과 비문학 수업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교사의 자질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혹은 국어지식 영역을 가르치듯이

13)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1997, p.34.

시 단원을 지도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어과 교사는 시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국어지식 영역을 지도 하듯이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인 수업기술 이외에 다른 시교사의 자질이 필요한 것이다.

양왕용에 따르면 시 단원을 지도할 때 국어과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과 역할에는, 학생에 대한 이해, 시 이론과 비평론의 이해, 시지도와 수업 기술, 시창작과정의 이해 등이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과 같이 단순히 ‘아는 시’가 아닌, ‘생활 속에서 공유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즉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학 체험을 학습자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지도교사가 ‘시 창작 과정을 이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교사가 시에 대한 애정과 시 창작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시 수업은 더욱 열성적이 될 것이고, 이러한 교사의 열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비례한다. 따라서 시를 가르치는 교사는 전문가의 경지에 육박한 시에 대한 관심과 심미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¹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사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에 부응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기 능과 전략, 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학습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따른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관한 태도’의 학습이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

14) 양왕용, 위의 책, p.41.

에서 ‘내용체계’를 구조화하였다.

문학적 국어 사용능력은 문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고 하여 질적으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인 문학 지식은 문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식이어야 하고, 그 지식은 학습자가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국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의 문학 활동을 통해 그러한 지식이 습득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학습자가 개별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학습 활동을 강조한 이유이다. 또,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방향이자 ‘학년별 내용’을 제시할 때 ‘문학의 수용과 창작’ 범주의 학습 활동, 특히 다양한 유형의 개별 문학 작품 읽기와 해석과 평가 활동을 강조하고자 한 이유이다.¹⁵⁾

이 속에서 문학영역 목표를 도출해 보면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틀 안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시 교육의 방향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동적인 수용, 그리고 창작활동’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의 「7학년 국어과의 내용」 중 ‘문학’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문-(1)]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안다.

[7-문-(2)]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7-문-(3)]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7-문-(4)] 작품 속에 드러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15)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 pp.20~21.

[7-문-(5)]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 상황을 이해한다.

[7-문-(6)] 작품에 드러난 사회 · 문화적 상황에서의 인물의 행
동을 파악한다.

[7-문-(7)]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
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중에서 시 교육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항목은 [7-
문-(1)] [7-문-(2)] [7-문-(3)] [7-문-(5)]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단원은,

7-1-1-(1) 새봄

7-1-3-(3) 호수

7-2-2-(1) 바다가 보이는 교실

7-2-4-(1) 봉선화

7-2-4-(2)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7-2-4-(3) 어떤 마을

7-2-4-(4) 우리가 눈발이라면

등이다.¹⁶⁾ 이들은 ‘문학’이라는 큰 범주를 그 학습목표로 하는 대단원
중에서 하나의 소단원으로 시 텍스트가 부분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7-2-4. <시의 세계> 는 지금까지 하나의 하위범
주로 시를 학습했던 것과 달리, 중등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시만을 학습하
는 대단원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도 7-2-4. <시의 세계> 단원을 중점적으로 논의 하고자 하는

16) 보충학습, 심화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시 텍스트는 제외됨.

것이다.

나. 중학교 시교육의 현실

(1) 중학교 시교육의 실태

중학교 시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2004년 12월에 부산 소재의 A중학교 1학년 한반을 대상으로, 현재 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수업을 재현해 보았다. 학습자 중심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기말고사와 맞물린 12월에 수업 시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중학교 시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봉선화> 단원 수업 시현의 대략적인 과정이다. 17)

<도입 -10분>

전시 학습 확인을 위해 시의 종류를 형식상과 내용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시의 운율을 내재율과 외형률로 나누어 설명한다. 시를 감상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심상으로는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공감각적 심상 등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 때, 학생들은 전시간의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자리에 앉아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다같이 대답한다.

17) 이 논문의 초점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에 있다. 따라서 결과 비교를 위한 교사 중심의 시 수업에 대한 자세한 수업시안은 생략하기로 한다.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치러졌다.

<전개 - 35분>

에 대해서 설 칠판에 적힌 <봉선화>의 학습목표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읽게 하면 학생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는다. 학생들에게 봉선화와 관련된 음악(가곡)이 있음을 소개하고 각자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보라고 권유한다.

<봉선화> 전문을 낭독시켜보고, 봉선화의 규칙적인 리듬감이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 시간 과제물이었던 '시조의 특성'에 대해 과제물검사와 함께 발표시킨다. 칠판에 시조의 정의·형식·운율·갈래·시대상 등에 대해서 필기하고 이를 설명한다. 시 본문학습에 들어가서 작가를 설명하고 본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내용 정리에 대해서 간단한 필기와 함께 강조할 부분은 강조한다. (이때 이 시조의 종류와 운율 성격, 중심 소재 및 주제에 대해서 학습한다.)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준 다음, 교사와 함께 학습활동을 해결해 나간다.

<정리 - 5분>

본시 학습을 정리하면서 배웠던 시조의 특성을 한번 더 교사가 정리해 준다. 어렵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학생들에게 질문하게 한다. 질의응답 시간 후, 다음 차시를 예고하고 과제를 제시하고는 수업을 끝낸다.

이상의 절차와 과정을 따라 교사 중심의 수업을 시현한 후,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본고에서는 문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되어진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바람직한 교수방법을 모색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한반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의 내용은 크게 시에 대한 호감도와, 단원별 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시 수업에 바람직한 방향 등을 묻는 문항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시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1번, 2번 항목에서 조사한 뒤, 시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학생에 한하여 그 이유를 3번에서 조사하였다. 4번은 세분화된 항목으로 소단원 시수업의 만족도와 수업진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항목별로 세분화하였다. 5번과 6번에서는 대단원 수업이 끝난 후 학습자가 느끼는 만족도와 실생활에서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다음은 설문조사의 문항과 그 결과이다.

- | |
|--------------------------------------------------------------------------------------------------------------------------------------------------------------------------------------------------------|
| <p>1. 다음 문학 장르 중, 어느 것에 가장 흥미를 느끼십니까?
① 시(5%) ② 소설(45%) ③ 수필류(10%) ④ 희곡,시나리오(18%)
⑤ 없다 (22%)</p> <p>2. 학생의 시에 대한 호감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좋아한다(14%) ② 싫어한다(6%)
③ 그저 그렇다(66%) ④ 관심이 없다(14%)</p> |
|--------------------------------------------------------------------------------------------------------------------------------------------------------------------------------------------------------|

3. 만일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시어가 너무 함축적이다. (4%) ② 공감이 가지 않는다 (22%)
- ③ 수사법과 표현법이 어렵다 (19%) ④ 분석 위주의 수업 방식 (33%)
- ⑤ 기타 (22%)

4-1. <봉선화> 단원의 수업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 ① 재미있고 유익하다 (17%) ② 그저 그렇다 (51%)
- ③ 지루하고 따분하다 (28%) ④ 이해가 잘 안 간다 (4%)

4-2. 이 단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면, 특히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 ①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32%) ② 운율의 아름다움(20%)
- ③ 시의 주된 정서(48%)

4-3.<봉선화> 단원을 수업할 때 시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 ① 시험 위주의 설명 수업(42%) ② 문답식 수업 (27%)
- ③ 감상 위주의 수업 (22%)
- ④ 모둠을 통한 다양한 활동 (9%)

4-4. <봉선화> 단원을 공부할 때 주로 이용된 자료는 무엇입니까?

- ① 교과서만 (89%) ② 녹음기도 (1%) ③ 파워 포인트 (6%)
- ④ 컴퓨터 외 CD (0%) ⑤ 보조자료 (인쇄물) (4%)

4-5.<봉선화> 단원의 시 학습을 할 때, 받고 싶은 시 수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강의식 수업 (20%) ② 학생 발표 중심 수업 (17%)
- ③ 모둠 토의 수업 (24%)
- ④ 학생과 교사의 절충식 수업 (39%)

4-6. <봉선화> 단원의 시 학습을 할 때, 활용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에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의 항목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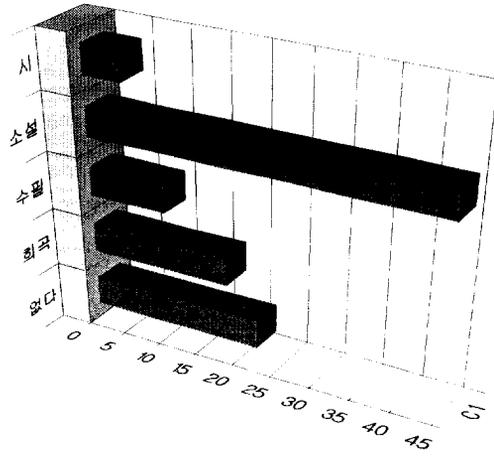
- ① 개작 또는 모방시 짓기 (12.5%) ② 이야기로 써 보기 (17%)

- ③ 노래로 부르기 (13.5%) ④ 그림으로 묘사하기 (20.5%)
 - ⑤ 연극으로 표현하기 (16.5%) ⑥ 감상 발표하기 (6%)
 - ⑦ 감상문 쓰기 (6.5%) ⑧ 시 창작하기 (7.5%)
5. 이 대단원을 학습할 때 수업 분위기는 대체로 어떠했습니까?
- ① 조용하다 (16%) ② 자유롭다 (19%) ③ 딱딱하다 (12%)
 - ④ 지루하다 (47%) ⑤ 재미있고 활발하다 (6%)
6. 이 대단원의 시 해석, 감상 후 나의 생활과 연계해서 적용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 ① 수업으로 끝낸다 (64%) ② 수업 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다 (20%)
 - ③ 생활 속에서 인용하거나 암기한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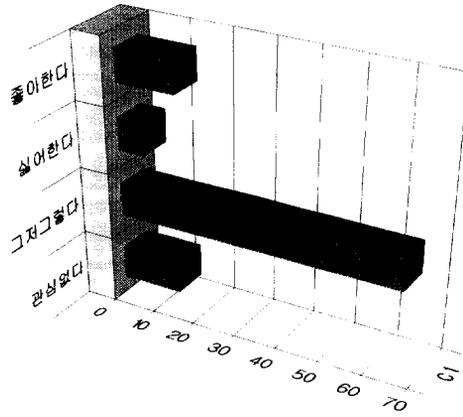
<표1> 교사 중심의 시 수업 후의 설문조사

먼저 문학 장르에 대한 개인별 호감도는 문학 교육의 전략 및 교육 효과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에 본 연구는 학생의 시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였다.¹⁸⁾

18) <표1>의 1번과 2번 항목 및 <그래프1>과 <그래프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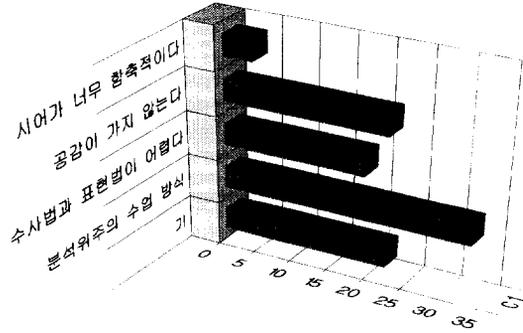
<그래프1> 평소 학습자의 문학 장르에 대한 호감도



<그래프2> 평소 학습자의 시에 대한 호감도

우선 문학 장르 중, 7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호감을 보인 장르는 소설과 희곡·시나리오였다. 전체 학생수 중 45%의 압도적인 호감도가 소설에 집중되었고, 희곡·시나리오도 18%에 달했다. 이에 비해 시는 5%에 불과해 시 수업에 호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흥미를 느끼는 장르가 없다’라는 대답도 22%여서 문학교육 전반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토대로 호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로는¹⁹⁾ ‘분석 위주의 수업 방식’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이 가지 않는다’가 22%, ‘수사법과 표현법이 어렵다’도 1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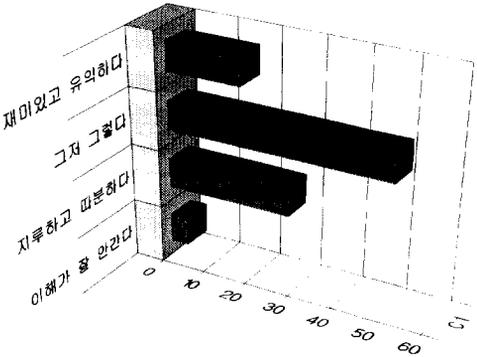


〈그래프3〉 평소 학습자가 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19) <표1>의 3번 항목 및 <그래프3> 참조.

이런 조사 결과는 학교 현장의 시 수업이 시가 가지는 의미의 포용성과 다면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분석하여 주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설문 결과는 학교 현장의 시 교육에 있어서 지도 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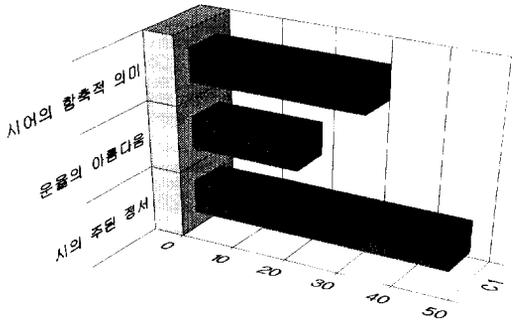
7-2-4-(1) <봉선화> 단원의 수업 시간에 분위기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²⁰⁾ 긍정적으로 ①번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17%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인 ②번③번④번이 83%에 달했다. 특히 ‘그저 그렇다’라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학생이 51%에 달해 과반수를 넘게 차지했다.



<그래프4>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의 수업 분위기

20) <표1>의 4-1번 항목 및 <그래프4> 참조.

다음으로 이 단원에 대해 특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항목에는²¹⁾ ‘시의 주된 정서’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대답이 4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워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32%, ‘운율의 아름다움’이 20%를 차지했다. 이 단원은 중등교육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시조단원으로 정형시만의 <운율에 맞추어 끊어 읽기>가 읽기 후 활동의 목표학습으로 제시되어 있고, <시의 주된 정서를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찾기>가 읽기 후 활동의 내용 학습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볼 때, 읽기 후 활동의 학습활동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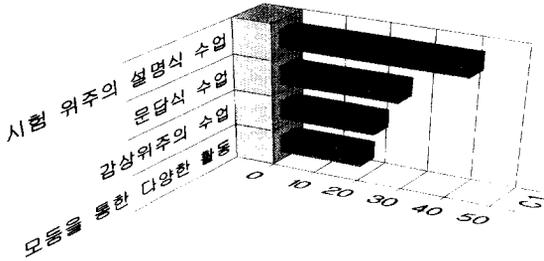


<그래프5> 교사 중심의 시 수업 후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21) <표1>의 4-2번 항목 및 <그래프5> 참조.

다음으로 소단원 수업 진행방식과 다양한 수업 자료와 활동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²²⁾

이 항목에서의 결과는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감상 위주의 수업’과 ‘모둠활동을 통한 수업’의 응답률이 저조한 반면,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인 ‘문답식 수업’은 27%를 차지하였고, 특히 ‘시험 위주의 설명 수업’이 전체 의견 중 42%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반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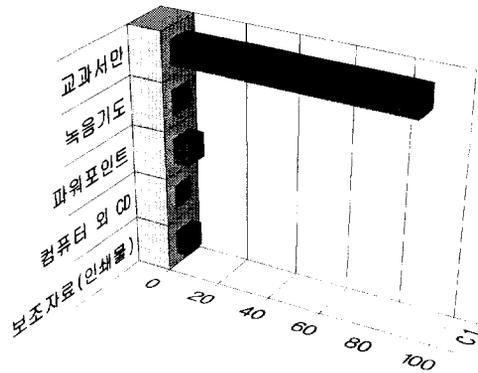


<그래프6> 교사 중심 시 수업의 진행 방식

수업 시간에 사용되었던 교재나 매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²³⁾ 교과서

22) <표1>의 4-3번 항목 및 <그래프6> 참조.

만 이용한다는 대답이 무려 89%에 달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의 매체들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의 의견만이 있을 뿐이었다.²⁴⁾ 이는 ICT 활용교육 및 매체 활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쓰여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 수업에서는 적극적인 매체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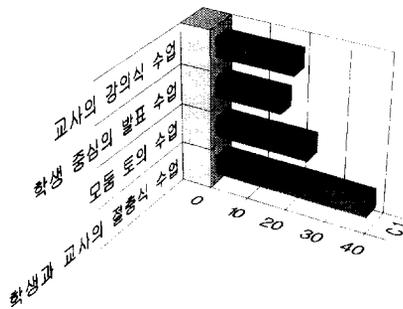


<그래프7> 교사 중심의 시 수업시간에 이용된 자료

23) <표1>의 4-4번 항목 및 <그래프7> 참조.

24) 이 항목의 소수의견으로는 녹음기도 2%, 파워 포인트 6%, 컴퓨터 외 CD 0%, 보조자료 (인쇄물) 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습자가 원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의 학습방법>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각 소단원 별로 이 항목을 세분화하여 다루었다. 먼저 학습자가 원하는 개괄적인 수업 방식을 질문 한 다음, 구체적인 활동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제시하여, 소단원별로 호응도가 높은 수업 활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 학습자의 호응도가 높은 활동이라고 하여도, 소단원의 수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실적 여건²⁵⁾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태는 그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문항에서는 학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수업 내에서 다루지 못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수행평가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두 가지 항목에 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래프8> 교사 중심의 시 수업 후의 학습자가 원하는 시 수업방식

25) 예를 들어, 차시 등의 부족으로 현실여건에서 불가능한 활동 형태는 문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5번 항목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수업 방식의 형태로는²⁶⁾ ‘학생과 교사의 절충식 수업’이 전체 의견의 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뒤로 ‘모둠 토의 수업’ 24%,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20%, ‘학생 발표 중심 수업’이 17%로 나타났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둠 토의나 발표 중심 수업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필자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 항목이었다. 이는 7학년 학생들이 아직 토의학습이나 토론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학습태도를 익히지 않았고, 발표수업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 교사의 강의식 수업만이 교사 중심의 수업에 해당하는 수업 방식이고 나머지 절충식 수업, 발표식 수업, 토의 수업 등의 세 가지 유형은 학습자가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6번 항목의 답변은 한두 개의 항목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었다.²⁷⁾ 이는 정확한 결과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고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을 반영하는 답변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 항목은 III장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론을 구상하기 위하여 제시된 항목이었다. 학습 목표에 부합하면서 최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시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요구하는 활동방향을 아는 것은 급선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학습자들이 실제 창작이나 감상의 항목에서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패러디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서 본격적인 창작에 앞서 패러디를 통한 시 창작의 접근 방식은 눈여겨 볼만한 점이였다. 또한 노래나 그림²⁸⁾ 연극 등으로 표

26) <표1>의 4-5번 항목 및 <그래프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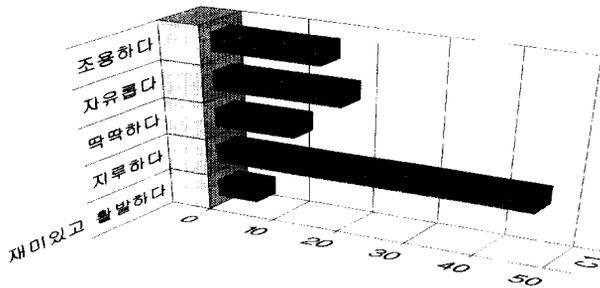
27) 개작 또는 모방시 짓기 12.5%, 이야기로 써 보기 17%, 노래로 부르기 13.5%, 그림으로 묘사하기 20.5%, 연극으로 표현하기 16.5%, 감상 발표하기 6%, 감상문 쓰기 6.5%, 시 창작하기 7.5%

현하는 데에는 비교적 높은 호응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대중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들 소단원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III장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방법론과 그 수업 효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소단원 항목의 질문 뒤에 5번과 6번 항목에서는 수업 분위기와 시 수업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5번 문항에서 소단원의 시 수업 분위기에 대한 답변은²⁹⁾ ‘조용하다’가 16%, ‘자유롭다’가 19%, ‘딱딱하다’가 12%, ‘지루하다’가 47%, ‘재미있고 활발하다’가 6%의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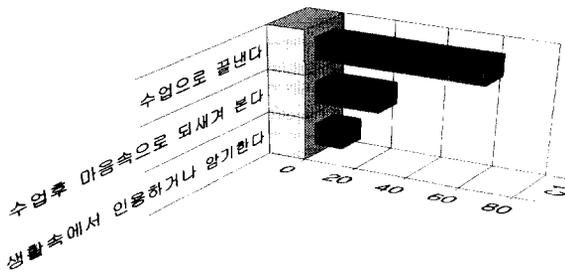
<그래프9> 소단원의 교사 중심 시 수업 분위기

28) 이 때의 그림에는 만화를 포함한다.

29) <표1> 의 5번 및 <그래프 9> 참조.

이로 보아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는 크게 흥미를 유발하거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시 수업이 끝난 후 생활에서 학습자가 얼마나 연계해서 적용하는 지³⁰⁾를 알아보기 위한 6번 항목에서는, '수업으로 끝낸다'가 64%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여 많은 학습자들이 생활 속에서 시를 연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그래프10> 교사 중심 수업 후 시의 생활에의 적용

30) <표1> 의 6번 및 <그래프10> 참조.

31) '수업 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다' 25%, '생활 속에서 인용하거나 암기한다' 11% 의 결과를 보였다.

(2) 중학교 시 교육의 방향

시에 대한 호감도, 소단원의 수업진행 방식, 시에 대한 이해도, 시 수업의 분위기, 시 수업의 올바른 방향 등의 설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시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감상을 배제한 설명 위주의 강의식 수업과 수업 분위기의 경직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에 대한 호감도가 낮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문답식이나 일방적 설명 위주의 수업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 수업 중에 다양한 활동과 수업 분위기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감상의 기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시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하고, 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근본적인 요소로는 신비평이론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비평은 문학의 본질적인 요소인 작품중심으로 작품 자체 내의 언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작품을 작품 자체의 조건에 의해 이해, 해석, 평가하고 사회적 조건이나 가치 평가의 기준에 의한 외부적인 접근에서의 평가는 배제한다. 이러한 신비평은 195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식위주, 암기 위주의 수업풍토를 낳게 되었다. 물론 신비평이 우리 교육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초적인 개념지도와 자세히 읽기 방법 등은 일부 활용되어야 하는 긍정적인 신비평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신비평이 ‘작품을 역사, 사회 이데올로기와 절연시킴으로써 삶과 문학의 풍부한 내적 관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³²⁾든지 한국 현대 문학

32) 김상욱, 「신비평과 소설 교육 방법의 재검토」, 『국어교육』, 79호,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1993.

의 실상과 방법론 사이의 괴리를 보이면서도 문학적인 장의 긴장력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비평을 수용했기 때문에 세계관 상의 비판을 거치지 않은 채 보편 논리에 함몰되고 말았다.³³⁾ 등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비평의 관한 비판은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도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신비평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슬어가 단편적인 지식의 항목이 되어 학생들에게 주입되었고, 신비평의 비평 방법 가운데 우리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이용하기 좋은 몇 가지가 편파적으로 애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학을 하나의 지식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가르쳐오던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비평적 지식을 첨가하여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³⁴⁾

오늘날 시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가 신비평과 필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봤을 때, 신비평의 폐단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수용이론에 근거한 학습자 중심이론은 필연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시 감상은 수용자인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예술적 체험을 하고, 작품의 세계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용이론에서도 작가의 작품이 독자에 의해 심미적으로 감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텍스트’에 불과하고, 읽혀지지 않는 작품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텍스트는 수용자와의 소통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탄생된다는 뜻이다. 즉, 시를 배우는 학생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주체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문학적 체험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점이 시사하는 것은 교사 주도의 일방적 강의식 수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수업의 목적이 시 이론의 암기나 시의 분석이 아니라,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 이론과 시의 분석이 필요

33) 우한용, 「신비평이 한국 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현대비평과 이론』, 10호, 1994.

34) 전하엽, 「학습자 중심의 시 지도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더 이상 지시자나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감상을 소개하는 길잡이로, 학습 과정을 관찰하는 관찰자로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중시하고 그들의 언어 사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에 권위적인 교사상이 아닌 다른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단순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이 시 감상자'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 교육 방법에 있어서 보다 즐겁고 학생 참여적인 수업이 되려면 수용이론을 적용한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시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수업은 교사의 설명에 의한 분석적, 암기식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자유 감상이 중시되는 개방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 수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이해와 감상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시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강의식 수업형태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현장 교사의 시 교육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소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참여 의식이 높아질 때 교사의 지도 방법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 그동안 시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신비평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용이론에 근거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한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Ⅲ.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론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시 교육은 수용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갖고 학습해가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방법이다. 이를 토대로 교육적 환경과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시되었던 몇 가지 수업 모형을 비교 검토한 후 보다 효율적인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기존의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모형

- 반응 중심 모형(경규진)³⁵⁾

1단계 :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반응의 형성

- 1) 작품 읽기 -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텍스트와의 거래 촉진



2단계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

- 1) 반응의 기록 - 짝과 반응의 교환
- 2) 반응에 대한 질문 - 반응을 명료히 하기 위한 탐사 질문
거래를 입증하는 질문

35)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반응의 반성적 질문

반응의 오류에 대한 질문

- 3) 반응에 대한 토의(또는 역할 놀이) - 짝과의 의견 교환, 소그룹 토의, 전체 토의
- 4) 반응의 반성적 쓰기 - 반응의 자유 쓰기 (또는 단서를 갖고 쓰기)



3단계 :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 → 반응의 심화

- 1) 두 작품의 연결
- 2) 텍스트의 상호성 확대

<표2> 경규진의 반응 중심 모형

이 모형은 수용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형의 하나로 철저하게 학생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수업의 진행을 구성하고 있으며 계획이나 평가와 같은 단계는 처음부터 생략하고 있다. 즉 독자 반응 비평에 바탕을 두고 독자인 학습자가 작품을 해석할 때 경험하게 되는 모든 반응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위의 수업 모형에서 수업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반응 중심 문학 수업의 첫 초점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 ② 교실 분위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반응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워야 한다.
- ③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감각을 세울 수 있도록 독서 후 다른 학생과 고립된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④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에 어떤 형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반응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 ⑤ 학생들의 반응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토의를 통해 고양시켜야 한다.
- ⑥ 문학 텍스트와 학생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학 경험을 문학사,

문학 지식 등이 대치해서는 안 된다.

- ⑦ 문학 교육은 사적인 독서의 단계를 넘어 학생 서로의 반응을 나누고 반성하는 성공적인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 ⑧ 문학 수업을 위한 텍스트의 선정은 단지 텍스트의 자질만 보지 말고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 ⑨ 문학에 대한 반응의 다양성과 임의성은 인정하되 반응에서의 명백한 오류는 충분히 반성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업의 원리를 바탕으로 반응 중심 접근법을 교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기본 가정이 있다.

첫째,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몰입은 문학 경험을 살아있게 한다고 본다. 이는 학생들의 문학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텍스트에 몰입할 수 없다면 그의 문학 경험은 풍부하지 못하며, 그 때 텍스트는 그 학생에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둘째, 일단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문화 배경에 기초하여 텍스트와 개인적으로 연계되면 문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문학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임의적 성격 때문에 학생들 각자의 반응이나 생각을 중요하다고 인정해 준다.

넷째, 문학적 분석은 일단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몰입되면 문학 경험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한 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반응을 격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독자 반응 중심의 문학 교육에서 교육의 목표는 심미적 문학 경험에 대한 반응의 성찰을 통해 더 좋은 반응의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그러므로 독자인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의 정서 반응을 유도하는 데 매우 적합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학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학생이 수업에 임할 경우 교육적인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업 자체가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순간적일 수 있겠지만 교사는 그러한 부분까지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어떤 수업 모형보다도 교사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의 반응을 예상하여 학습자의 어떤 사소한 활동도 무의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고려해 보면 이 모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올 수 있다.

2.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 (윤미영)³⁶⁾

전체적 접근단계 : 기대 지평의 형성
1단계 : 시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모듬 구성
2단계 :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 체험 발표
3단계 : 시 낭독 및 묵독하기
4단계 : 시 전체의 느낌, 분위기 표현하기
5단계 : 모듬 구성원간의 느낌 교환하기



부분적 접근 단계 : 기대 지평의 전환
1단계 : 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보고 글로 묘사해 보기
2단계 : 시 속의 서정적 화자의 심정을 간단히 써 보기
3단계 : 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화 활동

36) 윤미영,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종합적 접근 단계 : 기대 지평의 재조정
1단계 : 시를 흥미하며 분위기와 정감을 살려 낭독하기
2단계 : 시의 종합 감상 발표



발전적 접근 단계 : 기대 지평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와 심화
1단계 : 제재, 주제면에서 유사함 작품 감상
2단계 : 같은 주제나 제재로 시 작품 써 보기
3단계 : 생활 속에 체험 적용
4단계 : 시 낭송 테이프 만들기

<표3> 윤미영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

윤미영의 모형은 야우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대지평의 형성-기대지평의 전환-기대 지평의 재 조성- 기대지평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와 심화'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기존의 수용론적 시 수업모형이 '구인환 외 시 수업 절차 모형'³⁷⁾중심이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특이할 만한 수업모형이라 보여진다.

전체적 접근단계에서는 시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모듬 구성과,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 체험 발표, 시 낭송 및 묵독하기, 시 전체의 느낌, 분위기 표현하기, 모듬 구성원간의 느낌 교환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기대지평을 형성한다. 부분적 접근 단계에서는 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보고 글로 묘사해 보기, 시 속의 서정적 화자의 심정을 간단히 써보기, 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화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의 기대 지평의

37) 시 수업 절차 모형은 '계획단계-진단단계-지도단계-평가단계-내면화단계'로 이루어진다.

전환을 유도한다. 종합적 접근 단계에서는 시를 음미하며 분위기와 정감을 살려 낭독하기, 시의 종합 감상 발표 등을 통해 기대 지평을 재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발전적 접근 단계에서는 제재, 주제 면에서 유사한 작품을 감상하기, 같은 주제나 제재로 시 작품 써 보기, 생활 속에 체험 적용, 시 낭송 테이프 만들기 등을 통해 기대 지평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와 심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문학교육은 평가 방법과 맞물려 객관주의적 감상에 치우쳐 왔고 시 교육에서조차 그러한 접근방식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한 태도는 문학 텍스트의 단일한 해석으로 이어지고, 해석자인 학습자는 물론 문학 교사까지 해석의 장에서 배제시켜 왔다. 이러한 문학교육은 결국 시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상상력과 감수성의 세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야콥슨은 문학 연구의 대상을 문학이 아니라 문학성에 두고 있다. 그는 시는 말의 구조물이며, 시적 언어는 자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의 본질이 세계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의 구성에 있다는 관점을 취해 왔다.³⁸⁾ 야콥슨의 이와 같은 관점을 시 교육에 적용시켜보면 결국 시 교육은 시 속의 말을 파악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전체적 시 읽기가 되어야 하며, 시 속에서 재창조된 세계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시 교육의 도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도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학 텍스트가 독자를 향해 열려 있다는, 다시 말해서 읽혀지지 않은 텍스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 읽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독자의 독서 과정에서 떠오르는 형상(이미지)과 독자에 의해 재창조되는 텍스트의 의미 내용이다. 독서 행위는 화자(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시인)와 청자(내포된 독자)가 함께 대화하면서 의미를 이루어 가는 창조적인 과정이고, 그러한 창조 자체에 목적

38) 이대규, 『문학교육과 수용론』, 이회문화사, 2002, p.162.

이 있는 것이 시 텍스트의 본질이다. 시 텍스트의 의미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독자와의 대화 속에서 완성되고 창조되는 것이다.³⁹⁾ 이처럼 의사소통 과정의 관점에서 본 시 텍스트 읽기에서도 윤미영의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모형은 충분한 공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 접근 단계에서 기대지평을 형성하며 시 전체의 분위기나 느낌을 먼저 아는 것은 화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큰 윤곽을 잡는 행위이며, 기대 지평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적 접근 단계에서 청자는 화자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리거나 글로 묘사하는 활동은 결국 화자의 메시지를 화자가 재해석해 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 접근 단계에서 기대지평의 재조정의 과정은 청자가 앞 단계에서 재해석한 화자의 메시지를 종합하여 수용하는 단계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발전적 접근 단계에서는 화자의 메시지가 수용된 상태에서 청자는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화자에게 화답하는 형식의 다양한 활동(예컨대, 제재나 주제면에서 유사한 작품을 감상하거나 같은 주제나 제재로 시 작품을 써 보는 활동 등)으로 생활 속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윤미영의 시 감상 지도 모형은 학습자들에게 문학의 흥미와 감동을 살리는 지도 모형일 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으로서의 시 교육도 구현가능하고, 또한 시 교육의 목표중 하나인 상상력의 계발에 어느 모형보다 이점이 있다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이 모형을 적용하여 시 감상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9) 이대규, 위의 책, p.165.

3.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실제

이 수업모형은 Ⅲ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의 한 방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지도안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4단원 시의 세계에서 소단원 <봉선화>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첫 단원의 첫 제재이고 시 감상의 다양한 활동을 구성해 볼 수 있는 단원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전체 형식은 윤미영의 ‘전체적 접근 단계-부분적 접근 단계-종합적 접근 단계-발전적 접근 단계’의 형식을 이용하되, 각 단계별 활동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나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가. 수업지도안

<단원 설정의 이유>

시는 사람의 정서나 사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로서 그 특성상 많은 말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안에 아주 많은 것을 담아낸다. 따라서 시는 단순히 암기해야 할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할 무엇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를 읽고, 스스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정서를 느낀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시는 다른 문학 작품과 달리 매우 간결하고 함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데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시를 맛보기도 전에 시는 어렵다는 선입견만 안은 채 발길을 돌

린다.

이 단원은 문학 영역에 속한 단원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의 언어가 지닌 특징과 시 작품에 드러난 현실 상황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즉, 학생들에게 시의 세계에 다가가는 기본 방법으로 시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실 상황이 시에서 어떻게 녹아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의 바른 감상과 더불어 시를 창작하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 주고자 하였다. 학생 개인의 시 창작은 아직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이므로 대상 작품의 형식이나 운율, 분위기, 문체 등을 모방하는 시를 써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재미있게 시의 창작에 이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넓고 다채로운 시의 세계를 더듬어 나아가는 데 왕도가 있을 없지만, 이 단원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을 통해 시가 주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학생들이 좀더 친근한 마음으로 시의 세계에 들어가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단원 구성의 방향>

이 단원은 시의 언어가 지닌 특징을 알고, 시에 드러난 현실 상황을 이해하며 감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습 목표를 두고, 네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소단원 (1) '봉선화'는 누구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취한 현대 시 조이다. 이 시조는 운율이 잘 드러나므로, 시어의 특징 중 운율을 느끼며 작품을 감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소단원 (2)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삼행시 짓기' 활동을 통해 학습 동

기를 유발하고, 시어의 아름다움과 운율을 느끼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소단원 (3) '어떤 마을'은 시에 드러나는 심상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소단원 (4) '우리가 눈발이라면'은 시의 내용을 현실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며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 대단원 학습 목표 >

1. 시의 언어가 지닌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시에 드러난 현실 상황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 전 학습 내용과의 관련 >

-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음미한다. (문학, 6학년)
-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한다. (문학, 6학년)
-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안다. (문학, 중 1-1, 3단원)

교육 인적 자원부 편찬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는 1학년 2학기 4. 시의 세계 단원과 관련하여 그 학습 목표를 시어의 특징과 시적 상황의 이해에 두고 있다. 이러한 대단원의 학습 목표에 부합되게 소단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게 될 <봉선화> 제재의 수업역시 그 학습목표를 시어의 특징이해와 시적 상황의 이해에 두고, 시어의 특징과 시적 상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봉선화는 중등과정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현대시조이다. 시조가 가지는 장르적인 형식적 특성을 학습시키는 것도 중

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형식적인 특징에 얽매어 시적 상황을 이해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업은 부분에 연연하는 수업일 뿐 숲을 보진 못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봉선화> 단원의 수업을 위해서는 시조라는 낯선 장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되, 그 설명이 수업의 전체비율에서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교사의 적절한 배분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 ▶ 단원의 길잡이에서 설명한 시어의 특징을 소단원에 제시된 구체적인 시 작품 속에서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 시의 주제나 장면 등을 지나치게 설명 위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시를 충분히 감상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시가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시’란 시인이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을 시라는 문학 양식을 빌려 독자에게 건네는 대화와 같은 것으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도록 한다.
- ▶ ‘생각넓히기’에서 모방시 쓰는 활동을 할 때, 모방시 쓰기의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고, 예시 작품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방시 쓰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모둠 학습 등을 통해 재미를 느끼면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중학교의 국어과 수업은 소단원의 학습이 <읽기 전>과 <읽기 중>, <읽기 후>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읽기 후> 활동은 다시 **【내용 학습】** 과 **【목표 학습】**, **【적용 학습】** 으로 나뉘어져 제시되어 있다. 읽기 전 활동은

소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지식 활성화 단계로 윤미영 식으로 말하자면 전체적 접근단계에 해당된다. 읽기 중 활동은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감상을 하는 단계로 윤미영의 모형에서 부분적 접근 단계와 종합적 접근 단계에 해당된다 하겠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읽기 후>활동의 【내용 학습】은 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에 해당하므로 부분적 접근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국어과 지도서에는 학습활동이라는 부분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 점이다. <읽기 후>활동은 학습활동으로 세부내용을 점검해 보고,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고, 다른 작품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윤미영의 발전적 접근 단계에 해당한다.

제시된 소단원활동이 끝나면 <생각넓히기>의 단계가 나오는데, 이 단원에는 모방시 즉 패러디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모작 역시 순수한 창작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기대 지평의 확대와 심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이므로 이 단계도 윤미영의 발전적 접근 단계와 유사하다고 보여 진다. <생각넓히기>단계가 끝나면 자기점검과 형성평가 등을 통해서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이 이루어진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학습자는 심화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한 학습자는 보충학습을 통해 원만한 피드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본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

① 계획단계

시 학습의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본 텍스트와 관련지어 설정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감상과 관련된 정의적 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시의 장르적 장치에 관한 인지적 목표도 고려한

다.

②진단단계

진단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시에 대한 관심도와 시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확인하고, 시의 호감도에 따른 모둠을 구성한다. 이 논고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지도단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진단단계 및 평가, 내면화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한다.

③지도단계

지도단계에서는 봉선화라는 제재를 가지고 전체적 접근-부분적 접근 종합적 접근-발전적 접근-반성적 접근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 접근 단계에서는 전시학습을 확인하고 '봉선화'라는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이나 봉선화와 관련되는 경험의 발표를 유도한다. 이 때 학습자는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들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부분적 접근 단계에서는 각자 시의 분위기를 낭독해 보도록 한다. 이 활동은 모둠별로 발표를 해도 좋고 개별적으로 활동해도 된다. 학습자는 자신이 느낀 시의 분위기대로 묵독해 본 다음에 지원자가 낭송해 본다. 학습자의 낭송을 듣고 교사는 시조의 음보율을 고려하여 4음보로 낭송하도록 지도한 뒤, 학습자에게 끊어 읽을 곳에 표시를 하도록 한다. 준비된 PPT자료를 보여주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한 활동가 비교해 보도록 한다. 시조의 음보율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박인로의 시조를 제시하며 확인활동을 한다. 종합적 접근단계에서는 봉선화의 각 연의 내용에 대한 느낌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모둠별로 실시한다. 학생들이 작성한 시화는 수행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준비된 PPT자료를 활용하여 봉선

화의 시상 전개 및 주된 정서를 학생들에게 공감하게 한다. 이 때 학습자는 자료를 보여 자신의 느낌과 비교해 본다. 애니메이션 자료를 통해 시상 전개 및 주된 정서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종합적 접근 단계를 마친다. 발전적 접근 단계에서는 봉선화와 유사한 제재인 조지훈의 민들레꽃의 낭송을 듣고 두 시를 비교하며 모둠별로 토의활동을 하도록 한다.

대단원	4. 시의 세계	소단원	(1) 봉선화	쪽수	p.129	차시	2/6
학습목표	1. 시의 운율을 이해하며 시를 낭송할 수 있다. 2. 시에 나타난 주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모형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모형		학습집단조직	호감도에 따른 모둠 활동			
학습 단계	학습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읽기 전 활동	전체적 접근 단계	·전시학습 확인 시의 운율, 심상 ·‘봉선화’ 제목에서 연상되 는 느낌이나 봉선화와 관련된 경험의 발표를 유도한다. ·학습목표 확인	·전시학습 진단 2~3명에게 질문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 는 일들을 자유롭게 발 표한다.	5분	PPT		
읽기 중 활동	부분적 접근 단계	·각자 시의 분위기를 살려 낭 독해 보도록 한다. (모둠별로 발표를 시켜도 좋고 개별활동 으로 진행하여도 좋다.) ·시조의 음수율을 고려하여 4 음보로 낭송 하도록 지도한 다. ·자료를 보여 준다. ·박인로의 시조를 제시하며 시조의 음보율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자신이 느낀 시의 분위 기대로 묵독해 본다. ·공어 읽을 곳에 √표시 한다. ·자료와 자신의 활동이 일치하는지 스스로 점검 해 본다. ·4음보로 된 다른 시조 찾아서 √표시하기	10분	·멀티미디 어 학습 자료 ·시화 ·PPT ·학습지 ·학습활동 의 적용 학습 해결		

읽기 중 활동	종합적 접근 단계	<p>·봉선화 각 연의 내용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그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자</p> <p>·준비된 자료를 이용하여 봉선화의 시상 전개 및 주된 정서를 학생들에게 공감하게 한다.</p> <p>·애니메이션 자료를 통해 시상 전개 및 주된 정서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p>	<p>·모둠별로 간단한 시화를 제작하여 다른 모둠에게 보여준다.</p> <p>·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느낌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본다.</p> <p>·주어진 학습지의 1번을 스스로 풀이 해 본다.</p>	15분	<p>·멀티미디어 학습 자료</p> <p>·시화</p> <p>·PPT</p> <p>·애니메이션 자료</p> <p>·학습지</p>
---------------	--------------	---------------------------------------------------------------------------------------------------------------------------------------------------------------------	------------------------------------------------------------------------------------------------------------------------	-----	-------------------------------------------------------------------------

		<p>·봉선화와 유사한 제재인 조지훈의 민들레꽃의 낭송을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듣는다.</p> <p>●민들레꽃 : 조지훈 시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오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p>	<p>·모둠별로 봉선화와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른지 토의한다.</p> <p>·제재면에서 꽃을 사용하였고, 시적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이라는 점에서</p>		<p>·멀티미디어 학습 자료</p> <p>·PPT</p>
--	--	------------------------------------------------------------------------------------------------------------------	-----------------------------------------------------------------------------------------	--	---------------------------------

읽기 후 활동	발전적 접근 단계	<p>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아 얼마나 위로이라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 득한 거리(距離)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p> <p>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p> <p>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 느니.</p> <p>·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시적 소재로 어떤 것이 좋겠는지 질문한다.</p> <p>·각자가 생각해 낸 소재로 그 리움을 정서로 한 시를 써보 도록 한다. 수업시간에는 적 절한 제재만 찾도록 하고, 시 를 쓰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과제가 되도록 한다. 이 때, 학생들의 시 쓰기 활동에 대 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방 이나 패러디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p>	<p>는 동일하지만, 봉선화 가 동기간의 그리움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 움인 반면 민들레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다.</p> <p>·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족이나 친구가 그리웠 을 때를 떠올려 본다.</p> <p>·시를 쓰기 어려운 경우 에는 이전에 자신이 감 동깊게 감상했던 시를 골라 자신의 경험에 비 추어 재구성 해본다.</p>	10분
차시 정리	반성적 접근 단계	<p>·형성평가를 제시한다.</p> <p>·형성평가의 답은 교사의 흘 페이지에서 스스로 찾아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한다.</p> <p>·차시를 예고한다.</p>	·형성평가를 푼다.	·형성평가 지

<표4> 학습자 중심의 <봉선화> 수업 지도안

두 텍스트는 제재면에서 꽃을 사용하였고, 시적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봉선화가 동기간의 그리움과 어린시절에 대한 그리움인 반면 민들레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그리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게 한다. 두 텍스트의 비교가 끝난 후에 학습자 스스로 시인이 되어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를 쓴다면 어떤 시적 소재가 적절하겠는지 질문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족이나 친구가 그리웠을 때를 떠올려 본다. 각자가 생각해 낸 소재로 그리움을 정서로 한 시를 써 보도록 한다. 수업시간에는 적절한 제재만 찾도록 하고, 시를 쓰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과제가 되도록 한다. 이 때, 학생들의 시 쓰기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방이나 패러디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반성적 접근 단계에서는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대단원가 소단원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④평가단계

이상에서 지도과정이 끝나면 시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에 대한 지식만을 평가하거나 감상 내용의 옳고 그름만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평가를 위한 문항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시의 구성요소와 함축적 의미, 주된 정서를 파악하는 것과 시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의 평가에서 객관식 또는 필답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 작품의 정서적 특징 및 화자에 대한 질문은 주관식이나 발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내면화 단계

내면화 단계에서는 기대지평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와 심화를 위한 단계로서 지도단계에서 모듈별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시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거나 그림을 그려 보기, 또는 촌극으로 꾸며 보거나 시 낭송 테이프를 만들어 봄으로써 문학 텍스트 수용의 깊이와 폭을 넓게 확충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같은 제재나 주제의 시를 찾아보고 같은 주제로 시를 창작하게 해봄으로써 시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업의 실제

이상에서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모형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학습자 중심의 시 연구수업은 부산 소재 A중학교 1학년 한 반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을 한 대상과 다른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이다. 학제상 2004년 12월에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을 한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급했기 때문에, 2005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정된 소단원은 1학년 2학기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학년 1학기 5월로 앞당겨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수업은 앞에서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수업방안을 그대로 활용하되, 차시의 제한으로 '그리움'이란 제재로 시를 써 보는 활동은 과제물로 대신하였다. 대신 '그리움'에 적절한 구체적인 시상을 찾아 발표하는 활동은 수업 중에 진행하여 시에 대한 구상은 수업 중에 하도록 하였

다.

<시 전문>

봉선화

김상옥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 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어던 그 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험줄만이 서노라.

<읽기 전 활동-전체적 접근 단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실은 모둠형태로 자리를 배치하였고 한 모둠에는 5~6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봉선화'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이나 봉선화와 관련된 경험의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 학생들의 발표 내용

- 봉선화물을 들인 채로 잠이 들어 온 손가락이 빨개졌던 경험
- 어릴 때 엄마가 화분에 봉선화를 키우셨던 일
- 가곡 ‘봉선화’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경험

대체적으로 가곡 ‘봉선화’와 어릴 적에 봉선화물을 들여 본 경험 등이 많았다. 이 경험 발표를 토대로 ppt로 가곡 ‘봉선화’의 가사를 보여주고 플레이어로 가곡을 같이 듣는다. 준비된 ppt에는 봉선화에 관련된 영상들과 사진 등이 담겨져 있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노래를 들으며 ppt에 흥미를 보였다. ‘생각보다 이쁘다.’라며 처음 봉선화를 본 학생들의 감상도 있었다. 가곡을 다 듣고 난 후 봉선화에 얽힌 짧은 설화한편을 지도서에서 인용해 소개하였다.⁴⁰⁾

<읽기 중 활동-부분적 접근 단계>

전체적 접근 단계에서 형성된 봉선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시조 ‘봉선화’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갔다. ppt를 통해 ‘봉선화’시의 전문을 보여 준 다음 학생들에게 스스로 묵독해 보도록 1~2분 가량의 시간을 주고, 낭독해 보도록 하였다. 낭독발표를 유도하였다. 남학생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면서 발표를 주저하였으나 한 모둠에서 발표를 하자 지원자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첫 지원자의 낭독이 끝난 뒤 칭찬과 함께 다르게 낭독해 볼 지원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3명의 지원자가 시 ‘봉선화’를 낭독하였다. 모든 낭독이 끝난 뒤 이 시가 시조임을 고려하여 시조의 음수율을 ppt를 통해 학습하였다. 그리고 학습지를 배부한 뒤

40)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 1-2』, (주) 대한교과서, 2001, p180.

시조의 음수율을 고려하여 ‘봉선화’의 음수율을 스스로 끊어 읽을 곳에 V 표로 표시해 보도록 하였다. 활동이 끝난 뒤 ppt를 통해 자신이 한 V표와 비교해 보도록 하는 자기 주도학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박인로의 시조를 하나 더 제시하여 시조의 음모율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활동의 적용학습을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모듈별로 한 연 씩 순서대로 제시하여 각 연의 내용에 대한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였다. 총 여섯 모듈이므로 한연을 두 모듈씩 그림으로 나타내게 하였다. 그림은 색칠을 하는 등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 활동은 피하고 간단한 스케치 정도의 그림으로 그 느낌을 나타내게 하였다. 완성된 그림은 다른 모듈에게 보여주어 그 느낌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완성한 그림은 대부분이 시골풍경으로 초가집에 앉아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과 그 앞에 화단에 있는 봉선화의 모습 등이 많았다. 어떤 조는 화단의 봉선화를 크게 부각시키기도 하였고, 또 다른 조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화자 옆에 독백형식의 대화를 처리하기도 했으며, 2연을 맡은 조의 경우 편지지와 편지를 부각하는 형태가 많았다.

그림그리기 활동이후에 준비한 ppt를 가지고 봉선화의 시상 전개 및 주된 정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자신의 느낌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료를 통해 시상전개 및 주된 정서를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애니메이션을 본 후 주어진 학습지의 1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였다.

<읽기 후 활동-발전적 접근 단계>

‘봉선화’의 활동이 끝난 후에 봉선화와 유사한 제재인 조지훈의 ‘민들레꽃’의 낭송을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듣게 하고, ppt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 시는 제재면에서 꽃을 사용하였고, 시적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이라는 점에서는 ‘봉선화’와 동일하지만, ‘봉선화’가 동기간의 그리움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반면 ‘민들레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으므로 부제재로 선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수업이므로 이 시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우려가 있어 시에 대한 해설을 충분히 덧붙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리움이 어떤 감정인지 물어보았다.

☞ 학생들의 발표 내용

- 그리움은 보고 싶은 감정이다.
- 그리움은 안보면 생각나는 것이다.
- 그리움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이다.

등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 의견을 토대로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가 그리웠을 때를 떠올려 보게 했다.

단체에서 가족과 떨어져 여행을 갔을 때 엄마가 그리웠던 경우라던가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잠시 멀리 떠나 있어서(아버지의 출장 등) 그리웠던 경우, 또는 전학 간 친구가 그리웠던 경우,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웠던 경우, 또는 전근가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리웠던 경우 등의 경험을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각자의 경험을 살려 그 경험을 시로 나타내기 위해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시 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방이나 패러디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시를 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에 자신이 감동 깊게 감상했던 시를 골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재구성 해보도록 하였다. 학습자 중

심의 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요나 억압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창작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주지는 않도록 하였다.

시간상의 이유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여러 가지 그리움에 대한 경험을 되살려 시 쓰기를 과제로 부여받았다. 대신 수업 중에 자신의 시를 구체화시킬 경험을 재구성해 보는 등 창작의 전초단계까지는 학습이 진행되었다.

<차시정리-반성적 접근 단계>

모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확인학습을 하였다. 형성평가의 답은 교사의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찾아 다음 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반성적 접근 단계에서 실시한 형성평가는 【부록2】로 첨부하였다.

그리움에 대한 시 쓰기 과제물은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보다는 실제로 다양한 제재를 가지고 한 작품이 많았다. 친구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국한되지 않고 그 폭을 다양하게 넓혀 확대시켜나간 학생들의 확산적인 사고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움에 정서가 짙게 드러난 작품을 선정하여 【부록3】에 첨부하였다.

4.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효과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실시한 소단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학과 시에 대한 호감도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그 질문을 제외하기로 하고, 소단원 수업에 대한 내용과 시 수업 분위기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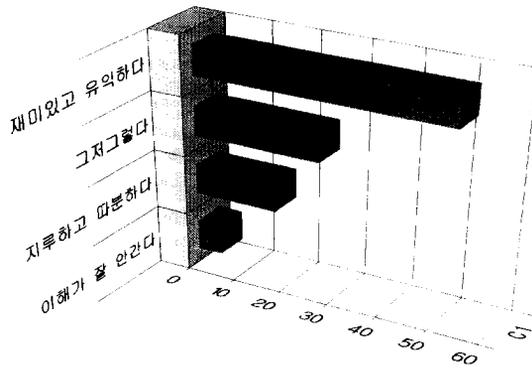
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물음은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대답이 5%에 불과해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므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역시 수업 전의 설문에서는 실제 수업안 작성을 위해 실시하였으나 수업후의 설문조사에서는 그 항목을 제외하였다.

1. <봉선화>단원의 수업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① 재미있고 유익하다 (52%) ② 그저 그렇다 (26%)
 ③ 지루하고 따분하다 (17%) ④ 이해가 잘 안 간다 (5%)
- 2.<봉선화> 단원을 수업할 때 시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① 시험 위주의 설명 수업(0%) ② 문답식 수업 (15%)
 ③ 감상 위주의 수업 (25%) ④ 모둠을 통한 다양한 활동 (60%)
3. <봉선화> 단원을 공부할 때 주로 이용된 자료는 무엇입니까?
 ① 교과서만 (0%) ② 녹음기도 (0%) ③ 파워 포인트 (48%)
 ④ 컴퓨터 외 CD (30%) ⑤ 보조자료 (인쇄물) (22%)
- 4.<봉선화> 단원의 시 학습을 할 때, 받고 싶은 시 수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교사의 강의식 수업 (5%) ② 학생 발표 중심 수업 (22%)
 ③ 모둠 토의 수업 (35%) ④ 학생과 교사의 절충식 수업(38%)
5. 이 대단원을 학습할 때 수업 분위기는 대체로 어떠했습니까?
 ① 조용하다 (5%) ② 자유롭다 (11%) ③ 딱딱하다 (9%)
 ④ 지루하다 (2%) ⑤ 재미있고 활발하다 (73%)
6. 이 대단원의 시 해석, 감상 후 나의 생활과 연계해서 적용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① 수업으로 끝낸다 (26%) ② 수업 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다 (43%)
 ③ 생활 속에서 인용하거나 암기한다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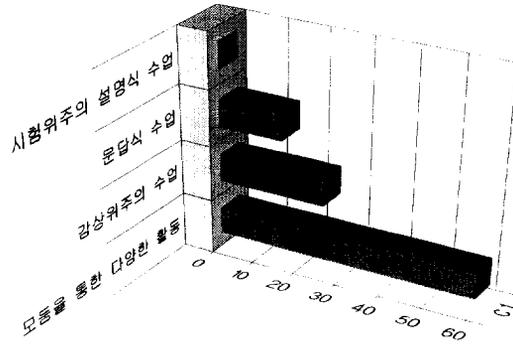
<표5>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후의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사 중심의 시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을 비교해 보았다. 교사 중심의 시 수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만을 비교해 보았다. 문학과 시에 대한 호감도는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제외했고, 시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물음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대답이 5%에 불과해 소수 의견으로 제외하였다. 수업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물음은 실제 수업안 작성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항목이었으므로 수업 수의 설문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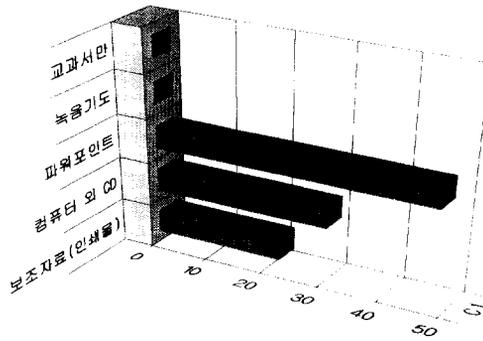
다음은 위의 결과를 가시화 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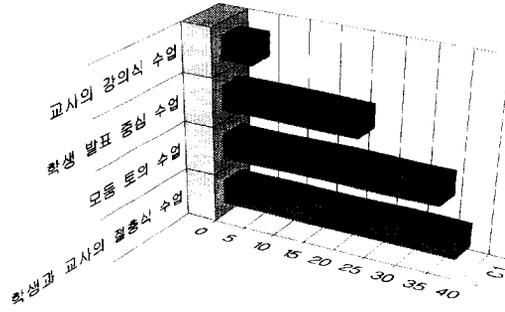
<그래프11>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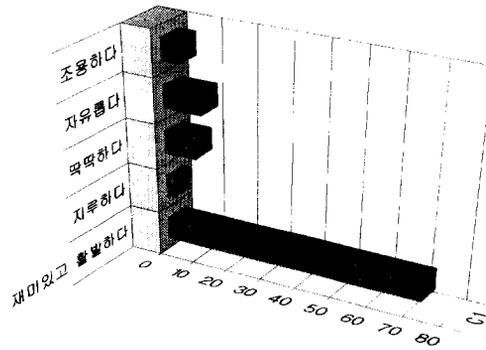
<그래프12>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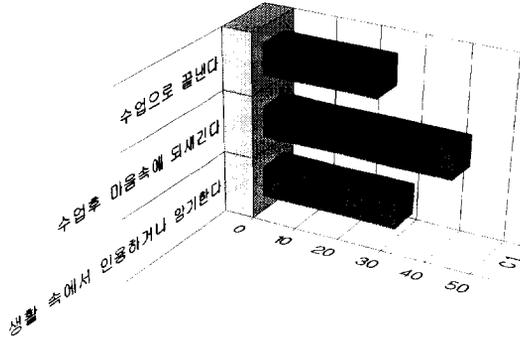
<그래프13>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시간에 이용된 자료



<그래프14>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후의 학습자가 원하는 시 수업 방식



<그래프15> 소단원의 학습자 중심 시 수업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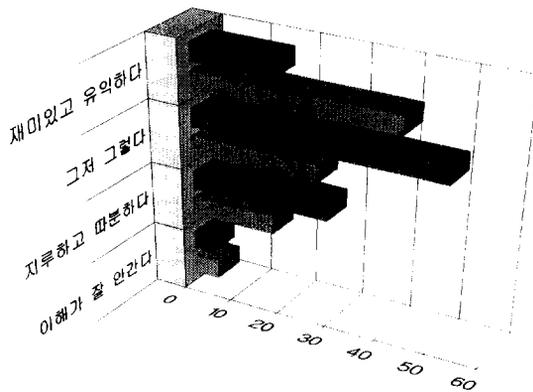
<그래프16>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후 시의 생활에의 적용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중심의 시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후의 결과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가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봉선화> 단원의 수업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항 목	교사 중심 ⁴¹⁾ (단위 : %)	학생 중심 ⁴²⁾ (단위 : %)
재미있고 유익하다	17	42
그저 그렇다	51	26
지루하고 따분하다	28	17
이해가 잘 안간다	4	5

<표6>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소단원 수업 분위기 비교



<그래프17>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소단원 수업 분위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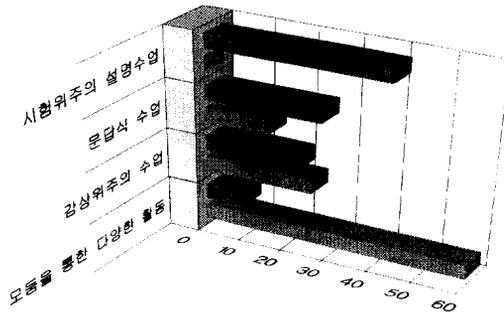
41) 교사 중심의 시 수업을 지칭한다.

42) 학생 중심의 시 수업을 지칭한다.

<봉선화> 단원을 수업할 때 시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항 목	교사 중심(단위 : %)	학생 중심(단위 : %)
시험위주의 설명수업	42	0
문답식 수업	27	15
감상 위주의 수업	22	25
모둠을 통한 다양한 활동	9	60

<표7>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시 수업 진행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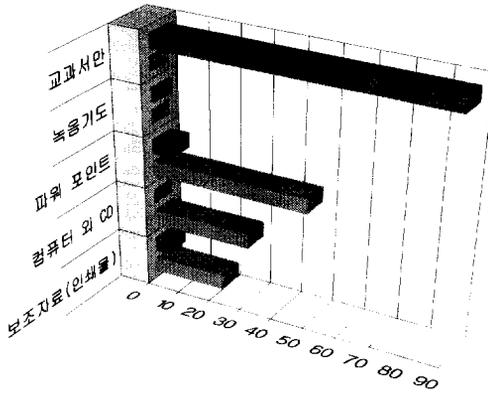


<그래프18>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시 수업 진행 방식 비교

<봉선화> 단원을 공부할 때 주로 이용된 자료는 무엇입니까?

항 목	교사 중심(단위 : %)	학습자 중심(단위 : %)
교과서만	89	0
녹음기도	1	0
파워 포인트	6	48
컴퓨터 외 CD	0	30
보조자료(인쇄물)	4	22

<표8>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이용된 자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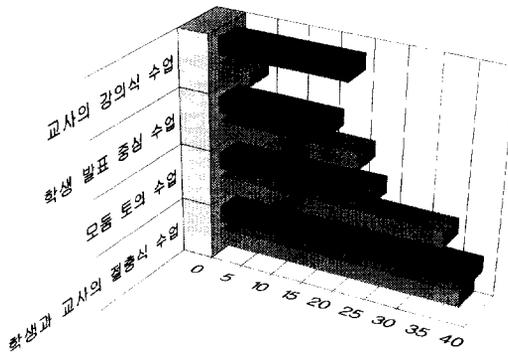


<그래프19>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이용된 자료 비교

<봉선화> 단원의 시 학습을 할 때, 받고 싶은 시 수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항 목	교사 중심(단위 : %)	학습자 중심(단위 : %)
교사의 강의식 수업	20	5
학생 발표 중심 수업	17	22
모둠 토의 수업	24	35
학생과 교사의 절충식 수업	39	38

<표9>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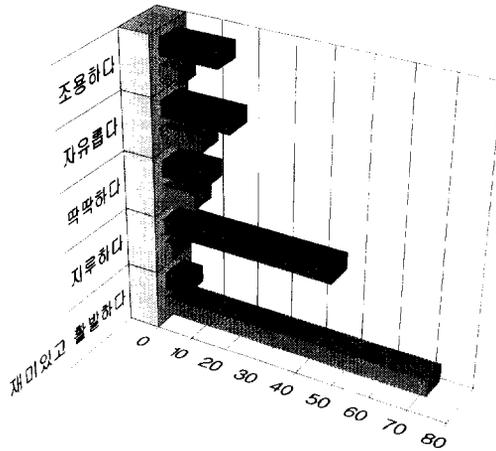


<그래프20>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 비교

이 대단원을 학습할 때 수업 분위기는 대체로 어떠했습니까?

항 목	수업전(단위 : %)	수업후(단위 : %)
조용하다	16	5
자유롭다	19	11
딱딱하다	12	9
지루하다	47	2
재미있고 활발하다	6	73

<표10> 교사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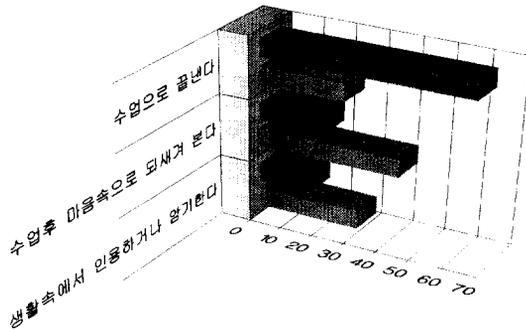


<그래프21> 교사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분위기 비교

이 대단원의 시 해석, 감상 후 나의 생활과 연계해서 적용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항 목	교사중심(단위 : %)	학습자 중심(단위 : %)
수업으로 끝낸다	64	26
수업 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다	20	43
생활 속에서 인용하거나 암기한다	16	31

<표11>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시의 생활에의 적용 비교



<그래프22> 교사 중심 수업 후와 학습자 중심 수업 후의
시의 생활에의 적용 비교

설문조사 결과 수업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는 42%에 달했다. 교사 중심 수업 17%에 비해 25%의 상승률을 보여서,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이 시 수업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수업 진행방식에 대한 항목에서는 시험위주의 설명식 수업이 교사 중심 설문지에서 대부분의 답변이었던 반면 학생 중심 설문지에서는 모둠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60%로 과반수를 넘었다.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은 현장 수업에서 시 수업 진행방식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수업 진행방식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활용하는 다양한 매체에 관해서도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은 다각도의 변화를 보였다. 교과서만을 가지고 했던 수업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시 수업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항목에서는 제시한 학생 발표 중심 수업, 모둠 토의 수업, 학생과 교사의 절충식 수업, 이 세 가지가 학습자 중심의 수용이론적인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원하는 학생은 5%에 불과해 학생들은 수업 방식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분위기에 대한 결과 역시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 이후에 훨씬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표10>을 통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시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생활과 연계해서 적용해 보는 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표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진행되었던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활동에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매

체에 익숙한 오늘날의 학생들은 시각적인 매체인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겨진다.

시간이 없어서 시의 각 연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못했지만, 시의 심상을 파악하거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에 대한 감상을 역시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언어 이외에 다른 매체로 그 감상을 표현하는 것 역시 능동적인 감상법이 될 것이다.

또한 시를 직접 창작해 보는 활동에 있어서 소재나 체제에 큰 제약을 두기 보다는 하나의 중심어를 제시한 후 여기에 대한 자유로운 연상을 토대로 창의적인 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에서 시 수업의 실제에 들어가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에서의 활동과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용이론에서는 ‘독자에 의해 하나의 텍스트가 작품으로 탄생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독자는 학생이 되는데, 문학 교육에서 학생을 텍스트에 대한 주체적 수용자로서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시적 상상력을 확장시켜 주어야 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시적 상상력의 의미는 시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감상 능력이나 해석 능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시에 가용된 낯설게 하기의 장치와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 학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 방법 중 모둠 토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둠 토의 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사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켜준다. 이 학습 방법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텍스트 유형, 집단의 크기,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교사의 시범 및 정교한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사가 모둠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요소는 집단의 분위기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생각을 제시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집단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집단 내에서의 교사의 행동이 중요한데, 이는 교사의 태도와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탐색을 방해할 수도 있고 고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업 모형이 학습 현장에서 잘 활용되어 진다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문학적 체험을 내면화 시켜 학습자를 '소극적인 수용자'에서 '적극적인 해석자'로 나아가 '창조적인 문학 체험이 가능한 잠재적인 시인'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들이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시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은 지금까지의 수업이 흥미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흥미만을 위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학습자에게 외면 받는 수업 역시 오늘날의 교육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수업이다. 따라서 시 수업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도 쉽게 그러면서도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획득하느냐'에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본고는 수용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에서 찾고자 했다. 학교현장에서 모든 시 텍스트에 제시한 시 수업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차시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준비사항이 복잡하여 교사나 학습자들에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 수업의 파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이러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와 시에 대한 열린 태도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게 하여 시의 세계를 체험시켜서 시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키우고 참된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시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가 무시된 채 교사의 일방적인 분석과 학생들의 피동적인 태도로 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오늘날 중학교 시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 감상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시를 사랑하고 감상하는 마음으로 시를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시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갖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다.

먼저 중학교에서 시 교육이 갖는 목적과 효과를 살펴보고 7차 교육과정의 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 뒤, 중학교 시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전체의 틀 안에서 현재 현장에서의 시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학습자들의 시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하고,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 수업 방향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용이론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수용이론을 근거로 적절한 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수용이론은 '작품은 독서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문학 텍스트의 참다운 이해는 독자의 참다운 독서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작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으로 한 작품은 수용자인 독자가 읽고 내면화시킬 때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용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의 방법으로 IV장에서 7학년 2학기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봉선화>를 예를 들어 수업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시 수업 방향을 ‘전체적 접근-부분적 접근-종합적 접근-발전적 접근-반성적 접근’의 단계로 구성하고, 종합적 접근의 단계에서는 설문을 토대로 한 다양한 모둠활동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수업 모형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문학적 체험을 내면화 시켜 학습자를 ‘소극적인 수용자’에서 ‘적극적인 해석자’로 나아가 ‘창조적인 문학 체험이 가능한 잠재적인 시인’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실제 수업 시현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시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성공적인 시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작품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 수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인 교실에서의 수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수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세와 더불어 시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국어 1-2』, (주) 대한교과서, 200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도덕, 사회-』, (주)대한교과서, 200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 1-2』, (주)대한교과서, 2001

<단행본>

강남주, 『수용의 시론』, 현대문학사, 1986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1997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97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8

<논문>

강현재, 「시 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김상욱, 「신비평과 소설 교육 방법의 재검토」, 『국어교육』, 79호, 한국국

- 어교육연구회, 1993
- 김선영, 「시 교육 방법론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 숙, 「시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시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오선,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법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의식, 「현대시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중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용균, 「수용미학적 접근을 통한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주향, 「시 교육 방법 연구: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문국희, 「시 교육의 기호학적 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문영희, 「시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1
- 박대홍,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용찬, 「교실에서의 시 읽기 단계와 그 확장」, 『어문학』, 82권, 한국어문학회, 2003
- 신주철, 「한국 시 교육의 실태」, 『한국어교육』, 14권, 한국문화사, 2003
- 심재휘, 「시 교육론」, 『현대문학이론연구』, 1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 엄정아, 「학습자 중심의 시교육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록호,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시 교육 방법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문석, 「한국 현대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혜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시 단원 지도 방법 연구」, 부산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희중, 「중등국어에서의 현대시 교육 방법론연구」, 『교육논의』, 14권, 전
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 , 「교과서의 현대시 수록 현황과 시 교육의 문제」, 『교육논의』, 17
권,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 우한용, 「신비평이 한국 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현대비평과 이론』,
10호, 1994
- 유병학, 「시문학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윤 미, 「시 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1
- 윤미영,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윤준옥, 「중.고등학교 현대시 교육의 문제점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전하엽, 「학습자 중심의 시 지도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 정선희, 「현대시 수업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창현, 「현대시 교육의 실태와 수업 모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조영수, 「현대시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지현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시 수업 모형」, 『국어교육연구』,
27호, 경북대학교, 1995

최보윤,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론의 메타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순열, 「문학 교육론-그 이론의 정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최종식,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부록1】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항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시 수업 실태조사

※ 평소 시 수업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문항에 V를 해 주십시오.

1. 다음 문학 장르 중, 어느 것에 가장 흥미를 느끼니까?

- ① 시() ② 소설() ③ 수필류() ④ 희곡·시나리오()
⑤ 없다()

2. 학생의 시에 대한 호감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좋아한다() ② 싫어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관심이 없다()

3. 만일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시어가 너무 함축적이다. () ② 공감이 가지 않는다 ()
③ 수사법과 표현법이 어렵다 () ④ 분석 위주의 수업 방식 ()
⑤ 기타 ()

※ 2학기 4단원 <시의 세계>를 학습했던 기억을 되살려 다음 설문에 답해주십시오.

4. <봉선화>단원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음 문항에 V표를 해 주십시오.

4-1 <봉선화> 단원의 수업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 ① 재미있고 유익하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지루하고 따분하다 () ④ 이해가 잘 안간다 ()

4-2. 이 단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면, 특히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 ①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 ② 운율의 아름다움()
③ 시의 주된 정서()

4-3.<봉선화> 단원을 수업할 때 시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 ① 시험 위주의 설명 수업() ② 문답식 수업 ()
③ 감상 위주의 수업 () ④ 모둠을 통한 다양한 활동 ()

4-4. <봉선화> 단원을 공부할 때 주로 이용된 자료는 무엇입니까?

- ① 교과서만 () ② 녹음기도 () ③ 파워 포인트 ()
④ 컴퓨터 외 CD () ⑤ 보조자료 (인쇄물) ()

4-5.<봉선화> 단원의 시 학습을 할 때, 받고 싶은 시 수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강의식 수업 () ② 학생 발표 중심 수업 ()
③ 모둠 토의 수업 () ④ 학생과 교사의 절충식 수업 ()

4-6. <봉선화> 단원의 시 학습을 할 때, 활용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에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의 항목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① 개작 또는 모방 시 짓기 ()
- ② 이야기로 써 보기 ()
- ③ 노래로 부르기 ()
- ④ 그림으로 묘사하기 ()
- ⑤ 연극으로 표현하기 ()
- ⑥ 감상 발표하기 ()
- ⑦ 감상문 쓰기 ()
- ⑧ 시 창작하기 ()

5. 이 대단원을 학습할 때 수업 분위기는 대체로 어떠했습니까?

- ① 조용하다 ()
- ② 자유롭다 ()
- ③ 딱딱하다 ()
- ④ 지루하다 ()
- ⑤ 재미있고 활발하다 ()

6. 이 대단원의 시 해석, 감상 후 나의 생활과 연계해서 적용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 ① 수업으로 끝낸다 ()
- ② 수업 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다 ()
- ③ 생활 속에서 인용하거나 암기한다 ()

【부록2】

형성평가지

1. 봉선화를 읽을 때 말의 가락이 (① 겉으로 드러난다. ② 시의 내부에 숨겨져 있다.)
2. 봉선화를 읽을 때 다음 중 시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인가?
① 함축성 ② 운율 ③ 상징 ④ 비유 ⑤ 사실성
3. 다음은 봉선화의 소재다.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면?
① 봉선화 ② 고향 집 ③ 꽃물 ④ 연붉은 손톱 ⑤ 힘줄
4. 시의 언어 중 운율이 자아내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깊은 인상과 감동 ② 음악적 효과 ③ 교훈적 효과
④ 독특한 분위기 형성 ⑤ 감각적 즐거움
5. '봉선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시이다.
② 3연으로 이루어진 평시조이다.
③ 3음보의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는 어린 소년으로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다.

【부록3】

학생창작물의 실례

어머니

곽 ○○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언제나 자식을
이끌켜 세우고 지켜주시는 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바다에 온 것 같은
잔잔함을 느끼게 하는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

언제나 자식을
구짚고 도와 주시는 분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랑스럽습니다.

언제나 그 어머니가
그칩습니다...

낙엽

이 ○○

어떤 이에게 낙엽은 즐거움이 된다.
가을산 위로는 슬긔뵈긔 단풍잎
밀스로는 낙엽들의 또 다른 속삭임

낙엽은 어떤 이에게 고독이 된다.
낙엽이 훗날리는 가을 길
이보다 더한 고독이 있을까?

낙엽은 어떤 시에게 그리움이 된다
책 속에 간직하고 다시 보게 된다면
옛날 실들이 그리워진다.

추억길

최 ○ ○

손 세상이 초록색 희망들로 넘칠 때
아기자기한 손잡고 거닐어 보던
어느 봄날의 새싹길

손 세상이 파란색 희망들로 넘칠 때
냉한 돌바닥처럼 차가운 얼굴로 거닐어 보던
느티나무들이 화해하라며 만들어준
어느 여름날의 느티나무 터널길

손 세상이 붉은색 희망들로 넘칠 때
붉은 저녁 노을처럼 파스한 손잡고 거닐어 보던
어느 가을날의 노을길

손 세상이 하얀색 희망들로 넘칠 때
맹하디 맹한 두 손 꼭 잡고 거닐어 보던
소복소복 너와 나의 체취를 남긴
어느 겨울날의 함박눈길...

너랑 나랑 손잡고 이리저리 거닐던
파스하디 파스한 길이 있었지.

너랑 나랑 손잡고 이리저리 거닐던
냉정하고 차가운 길이 있었지

너랑 나랑 손잡고 이리저리 거닐던
수리만의 추억길이 있었지
없어서는 안될 수리 둘만의 길이 생겼지...